

지역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를”

익산시, HS푸드와 지역농산물 공급 상생협력 ‘맞선’

익산시는 관내 식품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원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0일 익산시 청 상량사에서 식품기업 지역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익산시, (주)HS푸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출하회와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시장, (주)HS푸드 홍대광 대표이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유희환 센터장, 농산물출하회 김성은 농가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원재료 생



산·공급지원 △지속가능한 농·기업 상생협력사업발굴 △지역 원재료 소비 활성화 △인원하고 우수한 지역 원재료 생산·공급 확대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식품기업은 질 좋은 원재료 공급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농가는 고정적 판로확보와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대파, 고추, 이목, 버섯 등 16개 품목 280여톤의 원재료농산물을 기업 원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기업 맞춤형 원재료로 공급하고 있는 쌀에 이어 다양한 품목의 원재료 공급으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 협약을 계기로 이달 중 (주)HS푸드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시제품 생산을 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시작으로 8월부터 본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농농시민장단 상생협약을 체결한 익산형 일자리 첫 협력사업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농업·식품기업 간 지역 원재료 공급 모델을 마련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2 새만금JOB콘서트 개최

다양한 취업 콘텐츠로 구직자들에 정보·재미 한bane

군산시가 오는 23일 새만금JOB콘서트(GCO)에서 2022 새만금JOB콘서트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설명회, △NCS특별강연, △JOB매칭데이, △취업·창업컨설팅, △채용정보관 등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에는 각 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채용절차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신입사원의 현장 Q&A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생생한 입사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NCS 특별 강연에는 취업 전문 솔루션 기업인 ‘헤듀윌’의 방영환 교수가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취업 전략 노하우를 전격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참가 시에는 더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주요 대학과 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채용정보와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를 지원할 예정이다. 퍼스널컬러, 캐리커처, 메이크업, 취업타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양질의 채용 콘텐츠와 즐길거리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군산 산업단지 내 주요기업과 구직자를 매칭, 생산관리·물류·제품개발 등 여러 분야로 채용을 연계해 주는 JOB 매칭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합목적성 적극 행정’ 체계 강화

정현을 익산시장은 “민생현안에 단순 법적 검토의 소극 행정을 넘어 합목적성 적극 행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행정 위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을 살피며 느낀 점이 많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 단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신주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소극 행정 관행은 엄단하겠다”며 “법적 취지에 근거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판단하는 합목적성 적극 행정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체계 또한 합법적 위주에서 벗어나 합목적 검토 방안을 강구하라”며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 밖에도 “이번 주에 국가예산확보 및 시정 주요 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우리시 국회의원들과 당정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익산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항들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면밀히 협조·소통해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 완전 극복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익산시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감소에 탁월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통해 1,886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조금 지원 확대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우선순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노후 중앙난방 보일러를 세대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제출과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서명란을 없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청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보일러 대리점 업체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관내 보일러 대리점 업체를 통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할 수 있다.

설치업체에서 설치 후 설치확인서와 설치 완료 사진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보일러 설치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신청 바람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063-859-5436, 5443, 549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79%량 적게 배출하고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높아 환경도 생각하고 가스비 또한 28% 절감할 수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 받은 보일러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도내 ‘최대규모’

익산시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시는 민관 협력으로 호당 500만원 이내에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은 140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공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억원(복합기금40%, 시비60%)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확보로 지난해 37가구에서

올해 140가구로 수혜자가 증가했다.

지방 보수, 단열·창호,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주거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갖춘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 자재를 관내에서 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주거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관내 5개 농협 농작업대행단 출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육산농협 등 군산시 관내 5개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화 농작업 대행 사업이 이양 시기 영세·고령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농작업 대행사업은 대형 농업기계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농기계 조작이 힘들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취약계층의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농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기존 농작업 대행사업이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또는 대행업체에 제각

기인 작업비를 주고 맡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관내농협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농작업을 숙련된 작업자의 손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내 5개 지역농협에 지난해부터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종 22대의 농작업대행 장비를 지원, 농작업 대행단을 출범하고 농업 현장에 걸 체계를 구축했다.

농작업 대행가능 농작업은 경운, 정지, 피복 등 발작업과 파종, 이앙, 수확 등 논작업으로 금년 상반기 농번기에 265농가에 65.5ha 면적에 적기 영농을 지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새만금아카데미 4강좌 ‘범죄 대처법’

군산새만금아카데미 4강좌 오는 23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시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피서철을 앞두고 범죄 전문가이며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를 초청, 반드시 알아야 할 범죄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권일용 교수는 형사 출신 프로파일러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를 저술했으며 ‘알쓸법질2’, ‘용감한 형사들’ 등에 출연해 범죄 관계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통해 우리가 궁금해 왔던 프로파일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프로파일링 기법, 피서철 및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디테일하게 강의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맘껏광장 놀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2차 코로나로 움츠렸던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 제공을 통한 또래 집단 간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놀이활동기를 파견해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7까지 매주 토요일 9시와 10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업사이클링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 놀이활동을 진행하는 새활용놀이, △도구를 이용한 신체놀이를 각 5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맘껏광장 놀이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는 7월 7일 10시부터 군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063-54-4164)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아동의 놀 권리도 보장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